

무주군, 전 군민 국민지원금 지급

지급 대상 제외 1324명 예비비 3억여원 투입... 내달 18~29일까지 신청

무주군이 예비비 3억여 원을 투입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군민 1,324명에게도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지원금은 정부 5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하나로 지급대상자는 소득하위 88%(맞벌이와 1인 가구의 경우 특별 적용)에 해당해 무주군의 경우 당초 군민의 94.5%(인 2만2,551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무주군청사 전경.

이에 무주군은 9월 6일부터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해 27일까지 2만4,300명에게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활불편과 경제적 손실, 정서적 불안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원이 되다보니 선정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우리 군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군민들이 늘고 있어 '함께 하는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군 의회와 협의해서 구제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구제 조치로 무주군민 전체(100%)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 만큼 침체됐던 지역경기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오는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추가로 지원 대상자들에게 날짜, 요일에 관계없이 국민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사용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패럴림픽 참가 전민재 선수 격려

전춘성 진안군수는 27일 도쿄 패럴림픽을 마치고 돌아온 전민재(45) 선수를 격려하기 위해 진안을 반월리에 위치한 전 선수의 자택을 찾았다.

전 선수는 진안을 반월리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진안군 출신의 한국 대표 장애인 육상 선수다.

전민재 선수는 지난 8월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했다. 전민재 선수는 육상 200m(T36) 경기에서 4위(31초17)를 기록했으며 100m(T36) 경기에서는 15초

51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여 8위로 마무리 했다.

전민재 선수는 여자 장애인 육상에서 전설적인 선수로 2008년 베이징에서 패럴림픽에 첫 출전한 그는 2012년 런던에서 100m, 200m 은메달,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200m 은메달을 획득하여 한국 여자 육상 선수로는 유일한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이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올림픽에서도 최선을 다해 뛰어주어 고맙고 경기 결과를 떠나 선수의 노력이 찬사를 보낸

다"고 격려했다.

이에 전민재 선수에 "군민들의 응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출전할 국내대회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며 특유의 밝은 미소로 화답했다.

한편, 장애인 육상에서 T는 트랙, F는 필드를 뜻한다. 알파벳 옆 숫자는 선수들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뜻한다. T11~13(시각), T20(지적), T32~38(뇌병변), T40~47(절단및기타-스탠딩), T51~54(척수 등 휠체어), T61-64(사지결손 등) 등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온라인 진안홍삼축제' 참가 사전접수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박명석, 우덕희)는 오는 10월 8일~10일까지 3일간 온라인 축제로 열리는 '2021 온라인 진안홍삼축제' 프로그램 참가 사전접수를 오는 27일부터 진안홍삼축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21 온라인 진안홍삼축제는 크게 참여형과 시청형, 공모전 및 이벤트 등 3가지 주제로 꾸며진다.

사전 접수를 통해 참가자로 선정되면 ZOOM과 유튜브로 참여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더욱 생동감 있게 축제를 즐길 수 있다.

27일부터 시작된 사전접수 프로그램은 ▲'오세득 세프와 함께 하는 홍삼 음식체험' 쿠킹클래스(선착순 30팀) ▲퀴즈 프로그램 '우리가족 진안홍삼 골든벨'(선착순 30팀) '어린이 진안홍삼 골든벨'(선착순 30팀) ▲한의사와 건강을 상담하는 '진안홍삼야방' (사전접수자 중 5인 선정)이다.

또한 진안의 진한 매력을 찾는 '진안자랑 UCC 공모전'은 10월 4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가족 안부를 묻는 사연을 접수 받아 진행되는 '고향에서 온 편지'는 10월 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진안홍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온라인키트 3종(진안인삼담금주 만들기, 진안홍삼막걸리 만들기, 종합체험키트)은 27일부터 각 200세트씩 한정수량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박명석 위원장은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진안홍삼축제에 참여하셔서 축제를 즐기시고, 좋은 추억도 만드시기 바라며, 앞으로 진안홍삼축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벼 공동육묘지원사업 확대 촉구

제32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김종문 의원 군정질문

장수군의회 김종문 의원(사진)이 지난 24일 제 329회 임시회에서 벼 공동육묘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에 대해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김종문 의원은 이날 군정질문에서 날로 심해지는 장수군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을 언급하며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세·고령농 벼 공동육묘지원사업'을 벼 공동육묘 지원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군에 촉구했다. 이는 기존 관내 70세 이상 농업

인과 65세이상 독거 부녀농에게만 육묘를 지원하여 사업대상자가 제한적이었던 것을 관내 대다수의 농가가 보편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현재 관내 많은 농가에서도 공동육묘 구입을 통해 자가육묘에 소요되었던 영농비용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영농 인력난을 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장영수 군수는 농업, 농업법인, RPC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동육묘장을 확충하고 점진적으로 육묘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군민이 편하게 농사지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로자 모집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가을철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8명을 조기에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모집공고를 통해 지역의 우수 인력을 대상으로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서류전형, 체력검정, 면접을 통해 10월 13일까지 최종 선발하며, 10월부터 3개월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모집계획 인원은 58명으로 전라북도에 거주하며 신청일로부터 만18세 이상 신체 건강한자로 거점별로 근무가 가능한 자로 선발할 계획이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전라북도 거주자로 신청방법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채용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구직등록증 등 소정의 서류(모집공고문 확인)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재난으로부터 신속 대응하여 산림을 지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림에 관심이 많고 열정이 넘치는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무료 진료·검진

장수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천현우)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본부장 안환형)의 지원으로 지난 16일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피부과 무료진료 및 무료검진을 실시했다. 다문화 및 지역주민들이 피부진료 및 기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또한 무료진료 전 피부질환 특강을 진행하여 피부질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 할 수 있게 해 일상 및 가정에서 개인 및 가족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며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천현우 센터장은 "금년 피부과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을 지원해 준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에 감사드리며, 장수군 다문화가족 및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일반가족,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의 업무협약을 통해 연간 4회 무료진료 및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18일 올해의 마지막 무료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고위직 공무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진안군은 군청 강당에서 전춘성 군수를 비롯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4대폭력 예방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필수교육으로 올해부터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별도 교육이 의무화됐다.

이에 군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4대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인 최성광 강사를 초빙해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된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과 사례로 조직 내 리더를 역할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전춘성 군수는 "우리군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 고위직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폭력 없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창열 진안부군수 전북도 방문 예산 확보 최선

김창열 진안부군수는 27일 전북도청을 방문, 농축산식품국장을 면담하고 농업정책과 등 관련부서를 방문 진안군 현안사업의 추진과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진안군은 지역 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진안군 산지유류센터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등 주요 신규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2022년 진안군 특화품목(수박, 토마토, 갯잎, 멜론, 딸기) 육성 계획을 적극 설명하며 그에 따른 비닐하우스(74ha)가 농가에 지원 될 수 있도록 도비 112억원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창열 부군수는 "주요 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북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전북도 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부처도 수시로 방문해 내년도 현안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